

엄원상 멀티골...광주, 7경기 만에 승리 갈증 해소

〈엄원상〉

‘K리그1’ 인천에 3-1 역전승
엄원상, 후반 27·41분 연속 2골
펠리페 썬기골...한희훈 이적 첫 도움
엄, 부상 복귀전서도 팀 연패 끊어
박진섭 감독 “선수들 고맙다” 눈물
‘K리그2’ 전남, 제주와 1-1



비와 눈물이 영긴 광주FC의 승리 현장이었다. 광주는 지난 1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2020 K리그1 14라운드 경기에서 엄원상의 멀티골과 펠리페의 썬기골로 3-1 역전승을 거뒀다.

빗속 혈투가 끝난 뒤 박진섭 감독은 인터뷰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다.

“선수들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프다. 선수들은 끝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오늘 경기 절실하게 승리를 따내려는 모습에 감격했고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나는 것 같다”고 눈물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 감독은 이날 승리로 7경기 만에 승장이 됐다. 6월 17일 인천과의 홈경기 2-1 승리를 마지막으로 광주는 최근 6경기에서 1무 5패로 부진했다.

많은 의미가 있던 앞선 수원삼성과의 경기에서도 패가 남았다. 이날 광주는 팬들이 직접 제작한 창단 10주년 기념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안방인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첫 경기를 치렀다.

남다른 각오로 많은 준비를 했지만 경기는 0-1 패. 굳은 표정으로 ‘죄송하다’를 이야기했던 박진섭 감독은 비장 끝 승부였던 인천전에서는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광주의 미래’ 엄원상이 박진섭 감독을 울린 주인공이었다.

굳은 각오로 나선 인천원정이었지만 시작은 좋지 못했다. 전반 22분 인천 아길라라의 왼발에 광주의 골대가 먼저 뚫렸다.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된 후반전에는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선수들은 날벼락과 싸워야 했다.

후반 27분 엄원상이 경기의 흐름을 바꿨다. 상대 수비수 세 명을 몰고 페널티박스 안으로 진입한 엄원상이 오른발로 침착하게 슈팅을 날리며



광주 엄원상이 지난 1일 인천과의 원정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27분 동점골을 넣은 뒤 두 팔을 벌리며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인천 골대 오른쪽을 갈랐다

엄원상은 후반 41분 다시 세리머니를 펼쳤다. 펠리페가 중원에서 힐패스로 윌리안에게 공을 넘겼다. 왼쪽 측면에서 빠르게 질주한 윌리안이 중앙에서 함께 달려온 엄원상에게 공을 보냈다.

엄원상이 길게 공을 때린 뒤 빠른 스피드로 페널티박스 안으로 질주해 상대 골키퍼를 마주한 채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이번에는 골대 왼쪽을 뚫으며 승부를 뒤집었다.

기세가 오른 광주는 후반 45분 펠리페의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3-1을 만들었다. 한희훈은 펠리페의 골에 관여하며 이적 후 첫 도움을 올렸다.

‘난세의 영웅’이 된 엄원상은 지난 4라운드 울산 현대와의 홈경기에서도 화제의 인물이 됐다.

부상 복귀전이자 시즌 첫 경기였던 이날 엄원상은 ‘난적’을 상대로 골을 기록했고, 광주는 1-1 무승부로 연패를 끊고 시즌 첫 승점을 챙겼다.

이 경기 이후 3연승을 내달렸던 광주가 6경기 무승의 부진에 빠지자 엄원상이 다시 움직였다.

엄원상은 “최근 승리가 없어 코치진과 선수단 모두가 힘든 시기였다. 연패를 깨고 승리를 기쁘다”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진섭 감독의 눈물에 대해서는 “이번 경기를 준

비하면서 평소 감독님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셨다”며 “정말 힘들어 보이셨다. 그 모습 때문에 선수단이 더 하나가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공략이 통했다. 동계 훈련부터 ‘다양한 패턴’에 맞춰 발전을 꾀한 그는 빗속의 승부에 맞춰 과감한 플레이로 멀티골을 장식했다.

엄원상은 “코치진이 비가 내리고 잔디가 물에 젖어 있으니 리바운드 골에 적극 관여하라고 주문했다”며 “그래서 과감한 플레이를 선보였다. 그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대래곤즈는 5경기 연속 무패행진은 이

었지만 3위 진입에는 실패했다.

전남은 지난 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유나이티드와 2020 K리그2 13라운드 경기를 치렀다. 전남은 승점 2점 차로 앞서고 있는 제주를 꺾어 무패를 잇고, 3위를 차지하겠다는 각오였다.

시작은 좋았다. 전반 13분 임창균의 도움을 받은 박찬용이 시즌 3호골을 기록하면서 리드를 가져왔다.

하지만 후반전 제주의 거센 반격이 이어졌다. 전남은 후반 6분 제주 안현범에게 동점골을 내줬고,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드디어 열린다, KIA 챔피언스필드 관중석

내일 LG전부터 입장

4일부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관중석이 열린다. 광주시가 2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챔피언스필드 드로 관중입장이 가능해졌다.

KIA 타이거즈는 4일부터 열리는 LG트윈스와의 경기부터 입장권 판매를 시작한다. 판매 좌석은 전체 좌석의 10%인 2050석이다.

입장권 예매는 3일 오후 5시부터 가능하다. KIA타이거즈 앱(APP)과 티켓링크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가 이뤄지며, 시즌권 구입자는 이보다 1시간 먼저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5일부터 진행되는 홈 경기는 전날 오전 11시부

터 티켓 예매가 이뤄진다.

관람석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변화가 있다. 경기장에 입장하는 팬들은 발열체크를 하고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를 작성해야 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입장이 제한된다.

경기장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과 식음료 매장 등을 이용할 때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야 한다.

한편 오랜 기다림 끝에 팬들을 맞는 KIA는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다. 앞선 무관중 기간 팀 득점수에 따라 적립해 온 사인볼을 입장객에게 선착순 증정한다. 또 육성 응원이 금지된 만큼 응원수건을 제작, 4일부터 진행되는 홈 6연전 동안 모든 입장객에게 선분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

유해란 타이틀 방어... KLPGA ‘슈퍼 루키’ 등장

삼다수 마스터스 23언더파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이정은, 20언더파 치고도 2위

2020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슈퍼 루키’가 등장했다. 신인 유해란(19)이 역대 72홀 최소 타수 타이 기록으로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유해란은 2일 제주도 제주시 세인트포 골프&리조트(파72-6395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8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23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유해란은 2위 이정은(24·20언더파 268타)을 3타 차이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1억6000만원이다.

23언더파 265타는 KLPGA 투어 72홀 최소 스트로크 우승 타이 기록이다.

유해란은 2013년 MBN·김영주골프 여자오픈에서 23언더파 265타로 우승한 김하늘(23)과 나란히 72홀 최소타 우승 타이 기록 보유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신인상을 받은 이정은이 한때 2타 차로 뒤쫓기도 했지만, 유해란은 신인답지 않은 노련함으로 다시 격차를 벌였다.

유해란은 신인으로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는 이색 기록도 남겼다.

유해란은 지난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 초청 선수로 참가했다가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대회는 기상 사정으로 36홀 대회로 축소돼 유해란이 행운의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유해란은 작년의 우승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그는 1~4라운드 내내 선두를 유지하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다.



2일 제주도 구좌읍 세인트포 골프&리조트에서 열린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승을 차지한 유해란(SK네트웍스)이 대회관계자와 함께 ‘물허벅’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인이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4번째다. 1995-1996년 한국여자오픈을 제패한 김미현, 1995-1996년 서울여자오픈에서 연속 우승한 박세리, 2003-2004년 한국여자오픈을 2연패 한 송보배를 이어 유해란이 ‘슈퍼 루키’ 계보를 이었다.

단, 김미현, 박세리, 송보배가 아마추어 신분으로 우승한 다음 해에 프로 데뷔해 우승한 것과 달리, 유해란은 작년에도 프로 신분이었다.

유해란은 지난해 KLPGA에 2부 드림투어에서 뛰다가 하반기에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를 시작으로 본격 KLPGA 투어 대회에 출전했다.

이번 우승으로 유해란은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부상했다. 유해란의 신인상 포인트는 785점에서 1055점으로 올라 이 부문 2위 조혜림의 692점과 크게 격차를 벌리게 됐다.

이정은은 버디만 6개 잡으며 2018년 10월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의 KLPGA 투어 우승을 노렸지만, 올 시즌 최고 성적인 2위를 거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임희정(20)이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로 3위를 차지했고, 김효주(25)와 장하나(28)가 17언더파 271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 동성고, 청룡기 탈환 노린다

내일 안산공고와 8강전

‘2018 챔피언’ 광주 동성고가 청룡기 탈환을 노린다.

동성고가 3일 오후 6시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안산공고와 제75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8강전을 치른다.

2018년 ‘에이스’ 김기훈(KIA)을 앞세워 15년 만에 청룡기 정상에 올랐던 동성고는 투·타의 밸런스를 바탕으로 주목 받는 ‘우승후보’.

경기가 진행될수록 동성고의 짜임새가 살아나고 있다. 동성고는 부천고와의 1회전에서 연장 승부차기까지 가는 승부를 펼쳤다.

5-5로 맞선 연장 11회말 2사 1·2루에서 박건의 끝내기 안타로 신승을 거둔 뒤, 휘문고와의 32강전에서 한방의 힘으로 승리를 가져왔다. 최성진이 1회 첫타석에서 투런포를 날린 뒤, 2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담장을 넘기면서 홈런으로 5타점을 만들었다.

서울디자인고와의 16강전에서는 박건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박건은 김도영과 최성민의 연속 안타로 만들어진 1회 1사 2·3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만들었다. 박건은 9-1로 앞선 3회 무사 2루에서 좌월 투런포를 쏘아 올리며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동성고는 뜨거운 화력과 3학년 김영현, 2학년 신현민이 이끄는 든든한 마운드로 준결승을 넘어 우승까지 내다보고 있다.

관건은 ‘경기감각’이다. 1일 예정됐던 8강전이 비로 이를 연속 마뤘다. 원정길에 나선 동성고는 비로 서울에 발이 묶였다. 2일에는 마땅한 연습 장소가 없어 산책 등으로 컨디션 유지에 나섰다.

날씨는 복병을 만난 동성고가 안산공고를 넘고 정상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2일 서스펜디드로 장충고와의 대회 8강전을 이어간 순천 효천고는 득점에 실패하며 1-10, 7회 콜드패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